

사랑의 인술…‘차별의 바다’ 메웠다

■ 15일 국립 소록도병원 개원 90돌

기념행사 5천여명 참석…‘피사례의 집’ 명명식도

한센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고흥군 소록도의 국립 소록도병원이 15일 개원 90돌을 맞았다. 병원측은 이를 기념해 ‘한센인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으로’라는 주제로 15일 소록도 병원 중앙운동장에서 개원 90주년 기념식 및 제3회 한센인의 날 잔치를 마련했다.

소록도 역사

1916년 고흥군 소록도에 도입 ‘소록도 자혜병원’ 설립. 강제 수용 시작
1935년 조선(나라) 예법령’ 도입. 강제 노역. 단증수증·생체실험 등 민족학자 처형
1945년 전쟁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마을 대표 4명 학살
1962~64년 오마도 간척사업 공정률 95% 넘었으나 군사장권 개입으로 운명권 박탈
1963년 한센인 강제 수용처 폐지
2003년 소록도 병원 환자 117명 일본 정부 상대로 보상 신청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소록도와 한센인 정착 촌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인권위 ‘정책권고’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소록도병원 환경개선, 한센인 복지정책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센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등록 폐지 개선 ▲한센인에 차별적인 복지정책 개선 ▲의료증자사, 학생, 시민에 교육과 홍보 활성화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이날 기념식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 신중식 국회의원, 병원관계자, 전국 80여개 정착촌의 한센인 가족 등 5천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함께했다.

족구와 배구, 달리기 등이 이날 체육대회의 주종목이었다. 몸은 다소 불편하지만 경기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가슴속 깊이 박혔던 한과 외부의 편견은 경기를 치르면서 맘껏 날려 버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40여년간 소록도 한센인의 곁에서 한센인의 의료봉사 활동을 벌인 마리안느 스토퍼(72)씨와 마가렛 피사례(71)씨 등 오스트리아 출신 두명의 외국인 지원봉사자가 거주했던 공간을 ‘마리안느 스토퍼와 마가렛 피사례의 집’으로 이름 붙인 건물 명명식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김모(73)씨는 “이날은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족 모두의 잔치날이고 행복한 날이다”고 말했다.

소록도의 역사는 1916년 일제가 ‘도립 소록도 자혜병원’을 설립.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4대 원장 수호 마사토(周防正季)는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며 환자들을 강제노역과 폭력, 감금으로 내몰았다.

일제가 소록도를 떠난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1945년 8월 22일, 치안 부재 상태에서 병원 운영권을 둘러싸고 직원 간 세력 다툼으로 주민 84명이 치안 대원에게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1962년에는 환자 수 천명이 맨손으로 오마도 간척 사업을 시작했다. 며고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2년간 바닷길 1.3km를 매우지만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군사정권의 개입으로 무산됐다.

90년의 역사는 수많은 인물도 넣었다. 조창원(趙昌



한센인들의 한이 어린 고흥 국립 소록도병원이 개원 90주년을 맞았다. 15일 열린 전국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가자와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80)씨는 1961년부터 3년간 14대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오마도 간척사업’을 주도해 이정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74년부터 12년간 병원장을 맡은 신정식(94년 태계) 박사는 ‘소록도의 슈바이처’로 주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환자들의 손·발톱을 손수 깎아주는 원장을, 환자들은 ‘아버지’라고 불렀다.

한 때 6천명을 넘었던 주민들은 1963년 한센인 강제 수용제도가 폐지된 후 각자의 정착촌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전 661명만 남았다.

소록도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고령화(평균 73세)로 전국에서 1년에 70~80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동=주각증기자 gjjj@

전남쌀 시·군별 ‘공동브랜드’ 22개 선정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전남쌀 공동브랜드(상표)’ 22개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전남쌀의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 시·군별로 공동브랜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브랜드 22개(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는 ‘순천’ 가서 얼굴 자랑 말라’는 옛말을 이용한 순천시의 ‘순천미인’,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군의 ‘대숲맑은 쌀’, 우주 항공 중심도시인 고흥의 ‘고흥우주쌀’, 나비축제로 이름난 함평의 ‘나비쌀’ 등이다. 또 최근 여성 골프선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셀위’의 이름을 딴 장흥군의 ‘mishallwe’, 굴비로 유명한 영광의 ‘굴비골 진삼미’, 관광지 이름을 딴 여수의 ‘오동도 맑은 햇쌀’ 등도 공동브랜드로 선정됐다.

이 브랜드들은 ‘1시·군 1 공동브랜드’ 원칙을 지켜나가게 되며, 해당 지역의 RPC와 생산자대표, 행정기관,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구성된 ‘공동브랜드협의회’에서 벼 품종 선정, 계약재배, 가공설비 및 기술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각 브랜드의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총행기자 redplane@

■ 전남쌀 시·군별 공동브랜드

시군	브랜드명	시군	브랜드명
여수	오동도 맑은 햇쌀	강진	프리미엄 흉내평
순천	순천미인	해남	땅끝햇쌀
담양	대숲맑은 쌀	영암	달마지쌀
곡성	골짜니나삼청쌀	무안	횡토탕쌀
구례	청정백세쌀	함평	함평자지쌀
고흥	청산녹수	나비	나비쌀
고흥우주쌀	영광	굴비골 진삼미	
해제	해맞이	장성	천진홍콩길동쌀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	완도	완도청해진미
화순	고인돌건강미	진도	진도 미리농밀쌀
장흥	mishallwe	신안	갯벌여문쌀

공시 최고

사 건 2006기20
신청인 김현립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고성리 인산동 802호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8. 28.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계기로 하면 권리가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인수표

· 번 호 : 2006141415-07514121

· 금 액 : 지금 1,000,000원(7세)

· 발 행 일 : 2006. 5. 2

· 발 행 인 : 전남농업현대화협회

· 취소수지인 : 김현립

2006년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 부 한

공시 최고

사 건 2006기21
신청인 진관복

전남 완도군 고군면 원보리 239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8. 28.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계기로 하면 권리가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인수표

· 번 호 : 20061404384-19904396

· 금 액 : 지금 100,000원(3세)

· 발 행 일 : 2006. 5. 3

· 발 행 인 : 전남농어촌농협

2006년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 부 한

공시 최고

사 건 2006기21
신청인 진관복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1112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8. 28.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계기로 하면 권리가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인수표

· 번 호 : 20061404384-19904396

· 금 액 : 지금 100,000원(3세)

· 발 행 일 : 2006. 5. 3

· 발 행 인 : 전남농어촌농협

2006년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 부 한

한정승인공고

방 이귀성(350125-1668619)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재권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제재권에

대한 권리, 청탁에 관한 민법 제1032조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풍고

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기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특별부

2005.5.23. 432호

공 고 인: 이정관, 이경미, 이종선

이준석

한정승인수리일: 2006. 5. 8

공고기간: 2006. 5. 16 ~ 2006. 7. 15

연 락 처: 전남 신안군 암해면 분례리 84-1

이종선(011-620-2418)

광주시 ‘6월 양대행사’ 지원체계 가동

(광주정상회의, 6·15통일대축전)

광주정상회의 참가 내·외국인 인터넷 공모

광주시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6·15 민족통일대축전’ 등 양대 국제행사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시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정상회의 행사에 참가할 내외국인을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고 있다.

정남군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5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2개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양대 행사의 성공적 개

최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들 행사와 관련, 2차례에 걸쳐 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를 가졌으며 지난 8일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숙박·의전·안전대책 등 관련 담당자를 포함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행사 20일 가량 앞둔 이달 25일부터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또 직접 주최하는 노벨평화상 정상회의(6월 15~17일)와 지원하는 입장인 6·15민족대축전(6월 14~17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무안공항 개항

미루지 말라”

무안기지부지·서남해안 관광지로서도(ј프로젝트)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의 관문이 될 무안국제공항 개항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층에서 조기개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무안기지부지에 들어설 한중국제산업단지 중국측(주) 진원(中源)은 기지부지 조기개항을 통해 6조8천80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